

美·中 ‘치킨게임’에 환율 널뛰기… 달러값 4개월 만에 최저

원·달러 환율 1424.1원, 25.8원 ↓
美-中 무역 갈등에 달러가치 급락
달러인덱스 21개월 만에 100 하회
달러 하락 속, 금 가격 급등세 지속

원·달러 환율이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 간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전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달러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한 영향이다. 달러 가치가 하락했지만 달러화 함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금 가격은 나흘 만에 10% 가까이 치솟았다.

1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24.1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 거래일 주간 종가와 비교해 25.8원 내렸다(원화값 상승). 달러가 증가 기준 1420원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통상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달러의 구매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환율을 끌어 내렸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9일 주간 증가 기준 1481.1원까지 올랐다. 이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 우려로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서울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지난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다. 이달 초 트럼프가 57개 국가(한국, 일본을 비롯한 56개의 개별 무역국, 그리고 유럽연합)를 상대로 예고했던 ‘상호관세’의 도입을 하루 앞두고 달러 가치가 상승했고, 상대적 ‘위험자산’인 원화 가치는 낮아졌다.

다음날인 10일(현지시간) 트럼프는 예정했던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지만, 도입 13시간 만에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관세를 인상해 미국을 향한 보복에 나선 중국에는 예외적으로 관세를 지속할 것이며, 기존의 펜타닐 관세(20%의 보편관세)에 별개로 적용되는

관세율도 84%에서 1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가 중국에 고강도 관세 조치를 결정하자, 중국도 같은날 84%로 예정했던 대(對)미 관세를 125%로 즉각 인상했다. 또한 전 세계 물량의 90% 이상이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희토류 금속 6종과 희토류 자석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 미국을 향한 보복 수위를 높였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본격화 하자 달러 가치는 빠르게 하락했다. 미국 시장 내에서 중국산 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통상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화의 구매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중국은 미국의 무역상대국가운데 수입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지난해 미국의 전체 수입액 가운데 중국산 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다. 액수로는 약 4400억달러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대(對)중 수출액은 1450억달러 규모에 불과해, 수입액 대비 33% 수준에 불과했다. 무역 전쟁이 장기화하면 미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달러의 약세에 타 통화 대비 달러가

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달러 인덱스는 지난 11일 99.892(100보다 높을수록 달러 강세)까지 내렸다. 달러 인덱스가 100 아래로 내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취임 이후 최저치는 1월 13일 기록한 109.812였다.

달러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주요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금 가격은 치솟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뉴욕 선물시장에서 1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2973.60달러에 거래됐던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11일에는 온스당 3244.60달러까지 상승했다. 4일 만에 9.1%나 올랐다.

전문가들은 달러화의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상호관세 혼선 지속에 따른 달러 약세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더욱이 4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 주요국 통화에 대한 절상 요구가 포함됐을 경우 유로 및 엔화 가치의 추가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환율 전망치로는 달러당 1400~1450원을 제시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글로벌 금융 불안 속 ‘금값 질주’… ETF 수익률도 고공행진

3200달러 돌파, 투자상품 수익률 급등
ACE 골드선물 레버리지, 14.79% 상승
전문가들 “당분간 금값 강세 지속”

국제 금값이 트로이온스(약 31.1g)당 3200달러를 넘나들면서 금 가격에 연동한 투자상품 가격도 뛰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CE 골드선물 레버리지(합성H)’는 한달간 14.79%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 ‘KODEX 골드선물(H)’과 ‘TIGER 골드선물(H)’도 각각 7.59%, 7.47%의 수익률을 올렸다. KRX 금현물지수를 추종하는 ‘ACE KRX금현물’ 역시 4.67% 상승했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이들은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되는 금 선물 가격 또는 일본도

쿄 선물거래소의 금 선물 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국제 금 선물 가격이 최근 고공 행진하면서 급등세를 타고 있다.

투자자들의 금 선호 현상도 뚜렷하다. 최근 한 달 동안 개인투자자들은 ‘ACE KRX금현물’을 639억원어치 순매수했으며, 외국인들도 39억원을 사들였다.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값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과 이에 따른 금융 및 경제 위축이 겹치면서 눈에 띄게 뛰고 있다. 14일 온스당 3245달러를 돌파하며 지난 11일 기록했던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국내 금현물 시장에서도 1kg

짜리 24K 금은 g당 14만8400원을 기록, 지난 2월 최고가에 근접했다.

금값 상승의 배경으로는 관세 정책에 따른 무역 갈등의 장기화, 미국 국채 매도 증가, 그리고 달러화 약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은 달러로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할수록 투자 매력이 높아지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원자재 투자 전문회사 위즈덤트리의 니테시 사 전략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무역전쟁은 글로벌 시장의 판을 흔들고 있으며, 이런 혼란 속에 금은 가장 선호되는 안전자산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달러

화 절하와 미국 국채 매도세, 그리고 미국에 대한 교역 신뢰도 저하가 모두 금값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금값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영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중 분쟁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이어지고 있다”며 “자산 가격 전반이 조정을 받을 때야말로 오히려 금 비중을 확대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원관희 기자 wkh@

韓대행 “관세 대응 필요한 경우, 트럼프와 직접 소통”

경제안보전략TF 주재, 협상 의지
“양국 통상 협상, 관세 부담 최소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태스크포스)를 주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양국 간에 일단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우호적인 모멘텀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양국 정부는 앞으로 양국 간 통상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세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내적으

로는 우리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도 계속 가동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상의를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관세 유예에 LNG 조선 협력 방안 양쪽의 관심 사항을 고려해서 장관급 협의중 각급에서 협의를 계속하면서 상호 모두에게 얘기되는 합의점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가 부처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견어냄으로써 우리 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외국 기업의 투자와 국내 진출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앞으로 미국 측과의 협상 과정이 반드시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과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국회에 민생·경제법안 처리 협조 요청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신속 논의도 부탁했다. 한 권한대행은 소위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대금정산 지연 등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법’ 개정안,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른쪽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뉴시스

법’·‘원전산업지위특별법’ 제정안 등을 언급하며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민생과 가 경제만 생각하며 추경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사예진 기자 syj@